

금속노동자, 자본의 심장을 뒤흔들다

7.13 총파업, 3만 조합원 상경 투쟁 전개...노사공동위 계속 거부 시 8월 2차 총파업 투쟁

노동·재벌·사법 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의 투쟁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를 뒤흔들었다

금속노조는 7월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주·야간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 3만 여명이 참가했다.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를 뚫고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포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한 조합원들은 300개 지회 깃발 입장과 함께 총파업 대회를 시작했다.

총파업 대회는 현대자동차지부의 모든 북공연과 현대중공업지부 확대 건부들의 몸짓 공연으로 열기를 더했다. 영상으로 금속노조 2018년 투쟁 보고와 신규지회 소개가 이어지고, 몸짓 문선대의 공연으로 대회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금속노조는 1차 총파업에 승리했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차 자본은 여전히 모든 금속노동자가 함께 살지는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노사공동위 쟁취를 위해 8월 2차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을 촉



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오늘 금속노조는 대한민국 자본의 심장부 양재동에서 재벌 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 파업 투쟁은 세상을 구하는 투쟁이다.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라며 하반기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경태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이 정리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 중인 강기성 지회장을 대신해 무대에 올랐다. 박경태 수석부지회장은 "회사와 법정관리인은 팔백 명이 넘는 직접 생산직 노동자를 정리하고 하려 한다. 이 정리하고는 대량해고를 넘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품사지회를 대표해 투쟁사에 나선 최재소 경주지부 다스지회장은 꼭 물어보고 싶었다며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고 조합원들 에게 물었다. 최재소 지회장은 "다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다스는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천오백 다스 노동자와 다스와 함께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이어 최재소 지회장은 "다스지회는 2, 3차 밴다가 1차 밴드에 끌리지 않고 1차 밴다가 완성차에 큰소리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강상호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전 조합원 총파업 상경 투쟁을 결정하자 회사가 고소·고발했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강해졌다"라며 "기

아차지부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와 완전한 848근무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금속노조 전 조합원에게 자랑스러운 기아차지부가 되겠다"라고 기세를 올렸다.

하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이 마지막 투쟁사를 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올해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 임금과 성과급 조금 더 받으려는 투쟁이 아니다. 산별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현대차 자본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6시간 총파업이 부족하다면 1박 2일 전면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금속노동자들이 다시 2차 총파업을 하고 양재동으로 달려오지 않도록 현대차지부가 먼저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여 약속서를 받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총파업 상경 투쟁대회 막바지에 조합원들은 노동·재벌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를 결의하며 들고 있던 하얀 풍선을 일제히 터뜨렸다. 조합원들은 힘차게 금속노조기를 부르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사법 적폐세력 구속, 피해노동자 원상회복”

7.13 총파업 상경투쟁 사전대회...“3불 가이드라인 박살”, 양재동 항의 면담 투쟁 벌여

금속노조가 노동·재벌·사법 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7.13 총파업 상경 투쟁의 첫 포문을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7월 13일 13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 적폐 세력 퇴진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벌였다.

노조 수도권 충청권 조합원 8천여 명이 대법원 정문 앞에 모여 사법 거래를 저지른 양승태 등 대법관들을 처벌하고 금속노조, 전교조, KTX 승무원 조합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길을 막고, 한 KTX 승무원은 대법원판결 이후 목숨을 버렸다. 양승태는 연쇄 살인마다”라며 “권력에 입맛에 맞는 판결로 콜텍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고,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임금을 훔쳤다. 이것만으로도 자본에 수백억 원을 챙겨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라며 “상고법원은 3심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조정하겠다는 거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욱 법률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18~20여 건의 사건 중 열 건이 노동사건이고 네 건이 금속노조 사건이다”라며 “금속노조는 필요한 법을 제기해 법을 만들어 온 노조다. 대법원의 적폐를 감추려는 태도, 금속노조가 앞장서 풀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대법원이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고 빼



앗아 자본에 넘겨주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연재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조합원은 “발레오만도 사건의 핵심은 산별노조 탈퇴다. 지회 단위가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다면 산별노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발레오만도 판결은 자본과 정권이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려고 거래한 사건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인근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장은 “후자가 나는 회사에서 경영위기를 주장하며 정리하고 했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화했다. 이 판례가 계속 남으면 대한민국 누구도 정리해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노동자 삶과 생명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거대한 놈들이 쓰레기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노동자의 힘으로 함께 청산하자”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영터리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도둑맞는 피해를 본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연단에 섰다.

이대회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노동조합을 흔들어 먹튀 자본, 투기자본의 공간을 채워준 조치가 양승태 대법원이다. 모든 적폐를 울바로 잡으려면 피해자 구제가 필수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의 범죄를 두둔하고 보호한다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민중이 사법 적폐를 바로 잡는데 나서

자”라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지부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금속노조의 사법 적폐 청산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한다고 약속했다.

서울 곳곳 지부 지회 현안 사전 결의대회, 현대기아차 면담투쟁 벌여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지부,

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각지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벌이며 자본에 사업장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가 새내하청노동자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2018년 임단협 체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금속노조 산별전환을 마친 대우조선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산업은행 규탄대회를 벌였다.

노조 울산지부는 정리해고를 예고하며 단협을 해지한 고강알루미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영안모자 자본이 베트남에서 대우버스의 2개의 차종을 바 이백 방식으로 생산하고, 복지축소와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무관리에 항의하기 위해 부천 대우버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서울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로 향했다. 조합원들은 현대차그룹의 임금인상 불가, 하후상박 연대임금 불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불가 등 3불 가이드라인에 항의하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현대차그룹은 면담을 거부하고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막았다.